

광주FC, 퇴출·강등 넘고 우뚝... 빛고을의 자부심



광주FC가 연승을 거두던 지난 9월 포항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명경기를 벌인 선수와 스태프들이 경기 후 포즈를 취했다.

(광주FC 제공)

축 구

2022년 2부 1위로 1부리그 진입
2023년엔 각종 기록 경신 후 3위
구단 첫 AFC 챔스 PO 진출까지
이정효 감독 용병술로 기적 이뤄
팬들, 선수·감독 투혼에 열광

내 심장의 첫 번째 그 이름은 빛고을
너밖에 몰라 미칠 것 같아
아래아래 아래아 아래아 아래아
날보면 행복한 우리 너의 영원한 친구

광주의 자랑 프로축구 시민구단 광주FC팬들이 경기장마다 따라 다니며 목이 터져라 부르는 응원가 가사다. 광주FC는 지난 3년간 광주시민들을 놀라게 했고 팬들을 미쳐 날뛰게 만들었다.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이 가난한 팀은 2022년 K리그 2부리그 선두를 달려 2022년 1부리그에 당당히 진입하더니 2023년엔 구단 역사의 각종 기록들을 모조리 갈아치우며 내로라하는 명문구단 및 강팀들을 누르고 3위를 차지했다. 구단 역사상 최초로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 무대에도 당당히 진출해냈다. 시즌 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올해는 스타플레이어들을 매각한 뒤 중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첫 출전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무대에서 3연승을 기록했다.

팬들은 거의 광적인 열기에 휩싸였다. 첫 경기였던 일본 요코하마 F.마리노스에는 7대 3, 일본 가와사키 프론타레를 1대 0으로 연달아 제압한 데 이어 10월 22일 경기도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3차전 홈경기에서 말레이시아의 조호르 다룰 탁짐을 상대로 3대 1로 완승했다. 이 모든 기적에는 무명이었다. 감독 이정효가 있었다. 전국에서 이정효 감독의 전술 능력에 의문을 갖는 축구 팬은 거의 없으며, 광주 팬들은 지금까지와의 구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에게 열광하고 있다.

광주FC는 군인팀인 상무불사조 시절(2003년)까지 합쳐 21년 역사를 가졌지만 시민구단으로 출범한 건 2011년, 불과 13년밖에 되지 않은 K리그 지킴이다.

광주FC는 돈에 쫓돌리는 기막힌 역사를 갖고 있다. K리그 출범 당시 광주는 실업축구구단이었던 상무 축구단과 연고 협약을 맺고 광주 상무 불사조라는 축구단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했다. K리그측은 실업팀을 끼워주는데 난색이었으나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또는 연고기업 확보를 통해 5년내에 정식 프로팀을 출전시킨다는 약속을 하자 받아들여준 것. 그러나 광주시는 약속한 5년이 다 되어도 팀을 만들지 못했다. 광주 상무를 응원하던 서포터스측은 분개하여 응원 포기라는 초강수를 둔다.

K리그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광주시는 추가로 2년 유예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이곳 저곳 기업을 문을 두드렸으나 광주연고 최대기업이라는 금호까지 재정난이 심해 난색을 보이면서 방향은 시민구단 창단쪽으로 전환되었다.

숙제를 떠안은 사람은 새로 당선된 강은태 시장이었다. 강시장은 전임시장의 약속을 이행, 광주 시민 구단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6월 3일부터 시민구 창업을 시작했다. 목표액은 10억. 7월 15일, 시민구 목표액의 절반인 5억원 정도를 달성했으며, 준비위에서는 12월 안으로 창단을 끝내는 걸 목표로 했다. 광주 출신 선수 기성용이 창단비 1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2010년 10월 18일, 초대 감독으로 최만환 감독이 선임되었던 12월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FC의 창단식이 열려 광주 시민구단이 공식적으로 탄생했고, 상무는 경상북도 상주시로 떠났다. 초창기 광주FC를 회상하면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들이 많다. 축구 하나만을 위해 뛰어온 선수들은 비늘구멍이라는 프로팀에 입단한 것 자체에 만족할 뿐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 없었다. 컨테이너 숙소, 연습장 뺑뺑이, 한심한 급식 등등 프로구단이라 하기엔 미망한 상황이 수년 이어졌다.

광주FC는 최다강등의 불명예를 가진 팀이다. K리그 1에서 K리그 2로 세 번 강등 당했다. 그러나 광주FC는 그때마다 1-2년 내에 1부 리그로 빠르게 복귀하는 저력있는 팀으로도 알려져 있다. 2022년 시즌 K리그2에서 최다 승리, 최다 승점이란 기록을 작성했다.

이정효감독의 매직 이후 광주FC 서포터스에는 축구광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새로운 팬층으로 확대되는 변화가 일고 있다. 지역민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서 광주FC 선수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 뛰고 있다. /정현호 학생기자

내년에 세계대회 개최 국제 스포츠 도시 부상

양 궁

광주광역시에서 25년 9월 세계 양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국제 스포츠 도시로 거듭난다.

광주는 앞서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대회로 스포츠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는 양궁 종목 최대 국제 스포츠 행사로 2년마다 대륙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5년 서울, 2009년 울산에 이어 2025년 9월 광주에서 개최된다.

특히 비장애인 세계 양궁선수권대회와 장애인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한 도시에서 연이어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평화의 울림(The Echo of Peace)'을 슬로건으로 5.18 민주 광장에서 쏘아 올린 화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평화를 기원하는 울림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근, 평화의 도시 광주의 정신을 담아 '25년 9월 5일부터 28일까지 광주 국제 양궁장과 5.18 민주 광장에서 경기가 치러진다.

광주시는 전쟁 등으로 인해 대회출전이 어려운 국가 선수단을 적극 지원하고 북한선수단 참가 특사 요청 등 '평화의 울림'을 전 세계로 확산하겠다는 의지이다.

광주시는 대회 준비를 위해 세계 양궁대회 지원단을 신설하고, 8개 분야 38개의 지원 과제를 마련하여 대회 홍보와 시설 인프라 확보, 경기 진행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

특히 90여개 국가에서 900여명의 선수와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회 기간 직원을 인천국제공항 안내데스크에 상주시키는 등 선수단 출입국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며, 셔틀버스 운행 횟수도 대폭 증가시키는 등 교통 편의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회 기간에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장 주변 주차장속도 대폭 강화된다.

겨울 스포츠 불모지에 핀 꽃...페퍼스, 꿀찌여도 괜찮아



10월22일 AI페퍼스vs한국도로공사 AI페퍼스가 한국도로공사를 3대0으로 이기고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배 구

지난 11월 22일 오후7시 광주 페퍼스타디움. 배구코트인 이곳에 프로축구 K리그 광주FC의 허울·정지훈·변준수·조성권이 2024-2025 V리그 2라운드 경기에 시구자로 나서 서브를 넣었다. 이 행사는 광주FC가 같은 광주 연고 프로스포츠구단으로서 AI페퍼스를 응원하고, 지난 2023년 페퍼스 선수단이 광주 승인을 위해 홈경기를 참관한 것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깜짝 이벤트에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겨울 스포츠 불모지였던 광주에 이젠 여자배구의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다. 바로 2021년 광주를 연고지로 창단한 V-리그 7번째 여자 프로 배구팀 AI 페퍼스의 열기다.

AI 페퍼스는 꿀찌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꿀찌다. 광주의 여자배구 팬들은 승패에 아랑곳 하지 않고 페퍼스 선수들을 사랑한다. 그녀들의 점프 서브와 스파이크, 아름다운 토스와 아슬아슬한 리시브 동작 하나하나에 환호를 보낸다. 이번 시즌 합류한 중국인 미들블로커 장위 주변엔 항상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팬들로 북적이고 주장 박정아는 팬들이 자랑하는 최고의 스타다. 어웨이 경기였지만 지난 10월 개막전에서 강적 도로공사를 3대 0으로 완파하는 일이 벌어져 팬들은 뒤집어졌다.

AI 페퍼스는 광주에 즐거움과 자부심을 주는 사랑스런 존재다. 창단 초기부터 팬들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광주의 새로운 즐거움을 만들고, 특히 광주의 배구 팬들 사이에서 열정적인 응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AI페퍼스는 팬미팅, 구단 공식 앱, 카카오톡채널등과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팬들과의 소통 및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다.

광주시는 AI페퍼스의 경기를 계기로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에서 개최되는 경기들은 경기도에 밀집되어있는 타 구단의 팬들은 물론 전국 각지의 팬들을 광주로 불러들이는 기회가 되며, 배구 경기장을 찾는 팬들이 늘어남에 따라 숙박업, 음식점 등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는 광주의 매력

더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구단과 지역의 협력도 활발하다. 조선대학교와 연고지역 클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광주여자대학교가 신설한 체육학과와의 교류등을 통해 지역 배구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주 시민들은 AI 페퍼스의 도전과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 응원하고, 광주의 자부심으로 자리잡은 AI 페퍼스는 팬들의 사랑을 동력 삼아 매 경기 최선을 다한다.

AI 페퍼스는 그저 승리를 위한 스포츠팀이 아니라, 광주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팀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기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전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광주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AI 페퍼스는 앞으로도 광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남을 것이다.

AI 페퍼스와 광주가 함께 만들어가는 스토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배구 팬이라면 한 번쯤 광주를 찾아 AI 페퍼스의 홈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이 도시가 지닌 뜨거운 응원 문화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정현호 학생기자